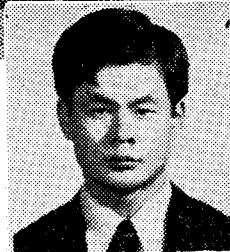


肥肉牛事業의 實際 (其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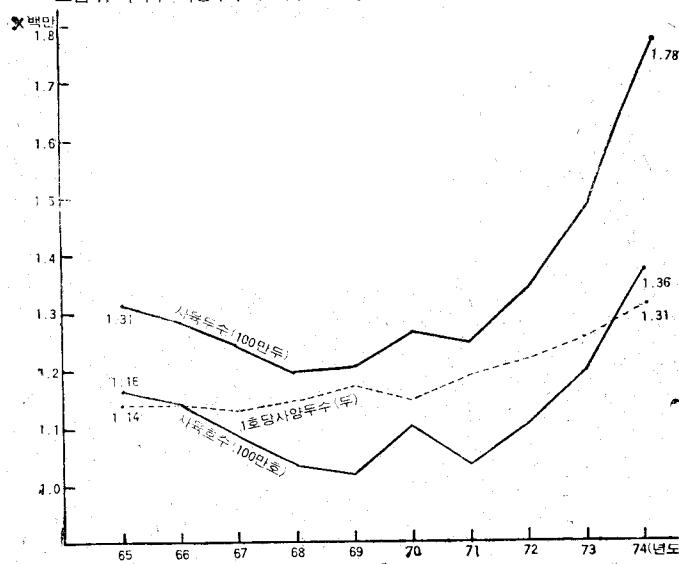


- 사료자급화의 정부방침에 따라 초식 ○
- 성 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는 이때 ○ 이 근 흥
- 비육우사업 전반에 걸쳐 연재로 재재 ○ <천일곡산 축산과 대리>
-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한다<편집자> ○

중진국에서 선진국대열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下에서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쇠고기의 양 산을 위한 비육우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게 됨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 까지의 한국 비육우 사업의 단적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때 GNP와 육류의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년에 와서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육류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림 1. 비육우 사양두수와 사양호수의 변화



따라서 이비육우사업을 함에 있어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리라 믿는바 이론과 실제경험을 토대로하여 엮어보려고 한다.

1. 우리나라의 비육우사양과 장래

가. 비육우 사양두수와 사양호수의 변화

우리나라의 비육우의 사양두수는 44년에 89만두에서 45년 해방과 동시에 무질서한 도살로 급격히 감소되어 60만두, 50년 사변때는 40만두로 감소되었다가 54년 76만 두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65년 131만두를 최고로 하여 다시 감소, 68년 120만두에 이르렀다가 73년 150만두 까지 증가하였다(그림 1 참조).

한편 사양 농가 호수도 65년 116만호(호당 1두)에서 74년 119만호(호당 2. 두)로 증가 호당 사육 두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나 기업 양축 경영은 65년 11호에서 602두(평균 54.7두)였던 것이 정부의 축산장려를 위하여 세율상의 특전으로 인하여 73년 43호에서 4,576두(평균 106.4두)로 급신장을 보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1 참조) 계속하여 국가에서 축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나아가서 식량자급이 100% 될 때 까지

表 1. 企業養畜 경영사항(고기소)

연도별	사육가구수	총마리수	전년대비	시설내역	
				축사	초지
1965	호 11	두 602	—	평 1,424	평 1,090
1966	17	593	-1,50	1,260	1,967
1967	14	662	11.64	1,740	1,145
1968	28	1,001	51.21	2,942	4,382,628
1969	59	1,796	79.42	4,560	6,061,909
1970	—	—	—	—	—
1971	32	1,853	3.17	5,591	12,270,620
1972	43	2,981	60.87	9,472	5,09,244
173	43	4,576	53.84	13,331	15,072,913

계속 특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축산인이 바라는 소망일 것이다.

또한편 지역별 사양호수와 사양두수는 과거

수년간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외의 지역은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표 2와 같이 경상도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고(전국두수의 37.85%) 다음이 충청도, 전라도 순이며 1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제주도가 2.36두로 최고로 많고 최하가 전남이 1.12두로 되어있다. 참고로 한우는 73년 농수산부 농림통계 연보에 의하면 총 1,189,975호에 1,486,188 두로 평균 1,25두이며 고기소는 1,485호에 6,964두로 평균 4.69두로 되어있다. 이 것을 보면 한우는 아직까지 농가에서 역용으로 사양하는 것이지 비육용으로 사양하는 것이 아니다. 농업기체의 보급과 식육소비의 증대에 의하여 역축으로부터 비육전용으로 변천되리라 생각된다

表 2. 지역별 가축 사육 두수

가축별 지역별	한 우	고 기 소	계	구 성 비	사육 호수	1 호 당 사육 두수
서 울	1,316	—	1,316	0.09	798	1.65
부 산	1,255	145	1,400	0.09	730	1.92
경 기	159,550	808	160,358	10.74	128,696	1.25
강 원	149,392	126	149,519	10.01	98,650	1.52
충 북	127,118	388	27,506	8.54	106,555	1.20
충 남	161,747	3	161,750	10.83	134,602	1.20
전 북	96,540	414	96,954	6.49	85,633	1.13
전 남	178,308	105	178,413	11.94	159,953	1.12
경 북	321,923	11	321,834	21.56	267,201	1.20
경 남	243,921	38	243,959	16.34	187,472	1.30
경 제 주	45,117	4,926	50,043	3.35	21,170	2.36
계	1,486,188	6,964	1,493,152	100	1,191,460	1.25

나. 비육우 증식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식육소비량의 증대는 최근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국민 1인당 년간 육류소비량을 보면 표 3과 같이 61년에 3,510 gm에서 62년에 23.05% 감소의 일시적인 위축현상이 있었고 63년에는 32.35%증가로 3,575gm으로 올라서면서 계속 증가하여 74년에는 5,813gm으로 되었으며 우리경제의 향상과 생활의 고도화에 수반하여 현재에는 상당한 육류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축산물 생산 공급량

도 계속 커졌다. 67년의 13만톤에서 74년에는 19만톤 75년에는 20만톤이 훨씬 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처럼 육류 수급의 확대추세를 감안해서 축산진흥 장기계획을 통해 정부는 81년도 목표연도까지 한우를 199만두, 육우는 10.5만두 유후는 20만두로 계속 증식하여 대가축 총수를 72년의 137만두에서 81년에 230만두로 거의 배가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에 의존된 배합사료를 생각할때 초자원을 이용한 비육우 사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일

表 3. 육류 1인당 소비 실적

연도	품종	우육	육돈	육계	육계	전년대비
1963	gm	784	2,037	754	3,575	32.36
1964	1,155	2,262	681	4,098	14,63	
1965	961	1,969	509	3,439	-16.08	
1966	1,038	3,377	659	5,074	47.54	
1967	1,126	2,543	844	4,513	-11.06	
1968	1,175	2,027	1,105	4,307	-4.56	
1969	1,064	2,422	1,357	4,843	12.44	
1970	1,174	2,596	1,421	5,191	7.19	
1971	1,317	2,491	1,542	5,350	3.06	
1972	1,309	2,700	1,676	5,685	6.26	
1973	1,354	2,716	1,560	5,630	-0.97	
1974	1,482	2,735	1,596	5,813	3.25	

석이조를 이루는 중요한 시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다음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육우 증식의 필요성은 더욱더 할 것으로 된다.

(1) 육우에 대한 기호성은 상당히 좋으나 활동도의 향상에 따라 질이 좋은 육우의 가강해질 것이며

(2) 비육우는 조사료의 이용성이 높아 노의 소비를 줄이고 토지의 이용성을 높일 있으며

(3) 세계적으로 육류의 부족이 예상되어 비시장이 높다는 것과

(4) 비육우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 이제부터 우육 생산에 생각할 점

우육의 생산원은 한우를 중심으로한 역용종 육용종과 유폐우였던 것이 근년에는 이것들 외에 유용종비육우의 우육 생산도 성행하게 되었다. 금후의 우육생산은 육우 사양두수가 급증하지 않는 한 유용종으로서 육생산을 기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편 세계의 우육 공급상태를 관찰하여 보면 최근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나 EAO(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우육 수급에 대하여 장래 우육의 절대량 부족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하고 있다. 즉 OECD는 75년 160만톤 85년에는 190만톤의 부족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FAO는 75년에 238만톤 85년에 287만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우리나라로 최근 지육 kg당 최고 상한선이 1,300 원에 도달 상한선 제도가 없으면 1,500원도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수출의 중단은 물론 국내시장 소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상당히 큰 우육파동을 예견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 때문에 한우는 물론이지만 유우의 고기 이용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제까지 우육생산은 한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유용종을 최대로 이용 한우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을 살려서 맛있는 고기의 생산을 위주로 생산하고 유우는 한우의 일부를 카바하는 동시에 장래의 대중용으로 생산하게 될 것으로 생산된다.

비육우 경영면으로 생각할 때 한우의 경우에는 육질로서 승부를 하여야 하겠으며 지육의 규격이 상품(上品)이든지 지방교접이 +3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질개선을 위하여 육용종인 앵거스, 브라만, 샤르레를 이용 체형 및 육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유용종과 경영면에서 승부할 수 있는 한우의 체형, 육질개선을 위하여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육용우의 품종

우리나라에서 사양하고 있는 비육우에는 일관적으로 한우이며 일부 기업 목장에서는 앵거스, 헤어포드, 샤르레를 보유하고 있어 잡종 생산에 따르는 산육량(產肉量)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 한 우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육우의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양두수도 가장 많다. 옛부터 역육용우, 농용우로서 우리나라의 수전농업(水田農業)에 없어서는 안될 가축으로서 귀중한 존재이다.

털색은 황갈색이며 전국의 것이 같은 계통에 속하며 지방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된다. 즉 서부 중부의 북부것은 대형 중

부, 북부는 중형이고 남부지방의 것은 소형이다. 이소는 체질이 튼튼하여 거친 관리에도 잘 견디며 지구력이 강하고 운동하며 역용으로 이상적이며 또한 육질도 좋으므로 육용으로 이용하여도 좋다.

2) 유용송

우리나라의 유용우의 대부분은 홀스타인 종이다. 유럽각국의 홀스타인종은 유육겸용형이 보급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홀스타인은 유용전문의 소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용송은 수년전 까지는 생산하면 곧 도살시켰지만 최근 고기의 수요가 높아져 한우로서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육자원으로서 홀스타인송이 주목 되여 왔다. 유용전문의 소이므로 한우에 비하면 육질은 떨어지지만 지방의 부착은 전체적으로 적고 적육(赤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사료의 이용성이 높고 성장율도 비교적 빠르다. 다시 말해서 대중적인 고기의 생산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

3) 앵가스(Aberdeen Angus)

유럽의 스코틀랜드 원산의 육용우로서 털색은 검고 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육용종으로서 세계에서 많이 사양되고 있는 품종의 하나이다. 체형은 보기에도 육용형으로서 장방형이다. 체중은 송 이 900~1,000kg, 우이 500~600kg 정도가 표준이다. 도육율은 65%~70%정도이며 사료의 이용성이 좋고 발육도 빠르며 체격이 튼튼하여 방목에도 적합하다.

4) 헤어포드(Hereford)

유럽의 헤어포드주 원산의 육용종으로 털색은 적갈색으로서 안면에 백색반점이 있다. 처음에는 뿐이 있었지만 미국에서 돌연변이로서 생긴 뿐이 없는것을 만들어졌다. 체적이 풍부하여 육용형인 소로서 체중은 송이 900~1,000kg 우이 600~700kg로 되여 있다. 다리가 튼튼하여 방목사양에 적합하게 되여 있다.

발육은 사료효율이 비교적 좋으나 육질은 거칠고 지방교집이 거의없으며 앵가스종보다 뒤떨어진다고 되여 있다.

5) 샤르레(Charolais)

유럽의 샤르레 지방의 원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육종용의 하나이다. 대형의 소로서 송이 1,000~1,200kg 우이 600~800kg 가 표준으로 되여 있다. 털색은 회백색이다. 체형은 체적이 풍부하며 지육은 지방이 적고 적육량이 많다. 이 소의 어려운점은 생체중이 50kg 전후이기 때문에 난산이 비교적 많다. 우리나라 사양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성능평가는 아직 뚜렷한 보고가 없다.

이상에 열거한 5개품종이 우리나라에서 사육하고 있는 비육우의 전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필자가 바라는 것은 한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좀더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계속>

■ 양계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

달걀과 닭고기는 각종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된 인류 최고의 식품입니다.

양계산물 소비 촉진회